

치 사

BBS불교방송의 개국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0년 사부대중의 원력과 불교계의 희망으로 개국한 불교방송은 공중파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전하고 우리 사회가 정토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과 불교방송의 불우이웃돕기 모금방송인 ‘거룩한 만남’이 ‘모자(母子)가정 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실천들로써 26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BBS불교방송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앞장서고, 고통과 집착으로 얼룩진 세상을 치유하겠다는 다짐으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동안 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 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미 종단에서도 깊이 자각하고 있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고 여러 방면에서 한걸음씩 진력을 다하고 있었기에 불교방송의 동참은 더욱 반갑고 뜻 깊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시대의 사회 갈등과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사부대중 모두 불교사회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향기롭게 구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책무와 요청에 BBS불교방송이 불자 누구나의 친절한 도

반으로 호응하고 부흥할 때, 글로벌미디어로서 대내외에 불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속에서 창사 26주년을 맞은 BBS불교방송은 포교 원력의 주춧돌로 10만 공덕주가 동참하는 만공회를 선택했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해 불교방송의 참주인이자 불교진흥에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이신 종하 대종사의 청안한 덕화와 선상신 사장의 남다른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BBS불교방송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을 빛내주시는 불교계 지도자와 정관계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불교방송 임직원 모두의 진력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 향기로움으로 전하여, 사회와 이웃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